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일상공간의 회화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강훈정

# 일상공간의 회화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강훈정

# 인 준 서

강훈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일상은 우리가 매일 겪는 하나의 세계이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공간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경험하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일상은 개인에게는 사적인 일들이지만, 그것은 또한 보편적인 일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 평범한 일상과 함께 창조적 활동이 일어난다.

본 논문은 연구자가 비일상적 공간이었던 대학교에서의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통해 일상의 공간으로 변한 학교 풍경에 관심을 가졌다. 공간의 재인식을 통해 바라본 연구자의 시각화 표현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을 통해 일상이 삶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보고 일상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본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예술과 삶이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개념과 일상생활이 학문적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 그 특성을 기술하고 일상 공간의 재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인 작품에 표현되는 일상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

사진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회화와 본인 작품의 사진회화에 대한 간략한 비교설명을 하며 본인 작품의 제작 과정 및 표현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의 석사학위 청구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설명을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본인이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경험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앞으로도 작품의 내용과 표현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며 본인의 작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 제작의 배경 .....	3
1) 일상성 .....	3
2) 재인식된 공간 .....	4
2. 작품 제작과정 및 표현방법 .....	6
3. 작품설명 .....	10
III. 결론 .....	21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벽(壁), 장지에 혼합재료, 48x190cm, 2013 .....	10
【작품 2】 막(幕)-저녁 8시 이후, 장지에 혼합재료, 71x204cm, 2013 .....	11
【작품 3】 분쟁(分爭), 장지에 혼합재료, 61x120cm, 2013 .....	12
【작품 4】 인공장애물(人工障礙物), 장지에 혼합재료, 85x120cm, 2013 .....	13
【작품 5】 뒷자리, 장지에 혼합재료, 70x208cm, 2013 .....	14
【작품 6】 사적인 공간, 장지에 혼합재료, 각 84x40cm, 2013 .....	15
【작품 7】 막(幕), 장지에 혼합재료, 130x194cm, 2013 .....	17
【작품 8】 막(幕), 장지에 혼합재료, 194x130cm, 2013 .....	18
【작품 9】 If, 장지에 혼합재료, 163x130cm, 2013 .....	19

## I. 서 론

본 논문은 2013년 ‘회색풍경’이란 제목의 석사 청구전을 통해 발표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비일상적 공간이었던 대학교에서의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통해 일상의 공간으로 변한 학교 풍경에 관심을 가졌다. 재인식된 일상 공간을 주제로, 연구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인 친숙한 것에 대한 낯설음의 체험을 통해 일상적 공간 혹은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밝히고, 개념 및 표현에 대한 근거와 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본 연구는 본인을 둘러싼 공간, 즉 익숙한 풍경들에서 출발한다. 익숙한 공간이나 사물들은 본인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본인은 그 중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문득 마주치게 되는 낯설음의 상황이다. 이 사소하고 무의미 할 수도 있는 사건들은 본인으로 하여금 일상이 반복 속에서 의외성을 깨닫고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이끌며, 창작의 동기가 된다.

본인이 표현하게 되는 낯선 풍경들은 한 개인의 일상 속의 소재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들의 배경이 되었던 대학교라는 공간 특수성은 작품을 보는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낯설음이라는 경험에는 정해진 규칙성은 없으나, 하루 중의 어느 시간대 또는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일상적 공간 속 사물,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는 가운데 일어난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경험 자체를 작업의 동기로 삼고 이를 통해 일상적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형식적 발전과정에 목표를 두어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일상이 삶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보고 일상

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일상에 대한 반복적, 습관적인 시선을 환기시킴으로써 본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예술과 삶이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 1장에서는 작품제작의 배경이 되었던 일상의 개념과 일상생활이 학문적으로 주목하게 된 배경,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성비판에 관하여 알아보고 본인의 체험하고 느낀 재인식 된 공간에 대한 작품 제작 동기를 서술하려 한다. 2장에서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회화와 본인의 사진회화에 대해 간략히 비교를 하며 작업 제작 과정과 표현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 제작의 배경

#### 1) 일상성

일상은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이며 삶의 일부이다. 한스 페터 투른(H.P. Thurn)에 의하면, 어원학적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부터 유래하는데, 그 뜻은 매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반복의 결과 ‘관례화된 것’ ‘습관’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문의 日常(일상)과도 일맥상통한다.<sup>1)</sup> 굳이 다른 사회학자들의 개념 규정을 끄집어 내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일상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삶, 그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일상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학문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전반기에 발생한 세계 대전과 전체주의 체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인류가 경험하였던 역사적 사건과 산업 생산 영역에 집중되었던 종래의 관심을 생활의 다른 영역 혹은 일상생활 전반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서구 산업 사회의 지속적인 진전과 함께 이루어진 노동 시간의 단축, 소비능력의 향상, 대중 매체의 발달 등이 일상생활에 대해 학문적으로 주목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앞서 지적했던 역사적인 계기들과 함께

---

1)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사랑, 2000, p.171

산업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도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접근해 갔다. 일상생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 또 다른 의미로 일상생활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바꾸기가 힘든 것이다.<sup>2)</sup> 일상성이란 단순한 일상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성의 장소, 즉 일상공간은 도시인 것이다.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은 일상의 사소하고 지루한 성격을 드러내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과 실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도시 공간에서 일상과 거리두기, 그것을 낫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상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적 관심과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비판을 통해 낫선 일상공간을 바라보고자 한다.

## 2) 재인식된 공간

사람들마다 다른 일상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 흔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공간은 반복적인 일과가 행해지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사람들은 날마다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는 것에 익숙한데, 이에 따라 개인의 삶의 공간 또한 한정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된다.

본인에게 일상 공간이란 자주 접하여 친숙하고 편한 것인 한편 때로는 지루하고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공간으로부터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관심을 두었던 것은 특정 공간을 일상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반응 하는가 였다. 경험한 예를 들어 본인은 고향 제주도에서 살 때 관광객 또는 타지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

2) 미셸 마페졸리, 앙리 르페브르 외,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pp.24-25

가우똥 거렸다. 제주도를 떠나 살고, 일 년에 한번 고향으로 갈 때마다 ‘제주도가 아름다운 곳이구나!’라고 반응한다. 이는 제주도가 권태로울 정도로 익숙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거리가 생겼기에 낯설게 느낀 것이다. 이 낯선 느낌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상을 벗어난 새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낯설음은 익숙함으로 인해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익숙한 대상으로부터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구나 자신과 친숙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친숙한 공간에서의 낯선 풍경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일상적인 외관을 하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새로움과 충격으로 다가온다. 늘 같은 시간, 장소, 사람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낯설음과 익숙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인 것이다.

본인 작업에서의 ‘재인식 된 풍경’은 누구나 똑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풍경이기보다는 그 대상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적, 심리적인 측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상의 객관적인 외관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숨은그림찾기’와 같은 풍경이다. 이 풍경들은 본인 일상 속으로 불연속적으로 가끔 우연한 기회에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들과의 마주침은 본인의 주변에 있던 공간에서 사건, 사물들과의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앙리 르페브르가 논한 일상성 비판에서의 체험과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2. 작품 제작과정 및 표현 방법

본인의 작업은 사진회화의 형식을 띄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진회화는 사진이미지를 차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회화에 사진을 차용하여 작업하는 방식으로 사진과 회화의 모호한 경계를 무너트린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sup>3)</sup>는 사진회화를 논할 때 늘 항상 빠짐 없이 거론되는 작가이다. 리히터의 작품들은 사실 일상성과는 거리가 멀다. 본인이 리히터의 사진회화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회화에 사진을 차용했다는 것과 흐리기 기법을 비교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리히터의 사진이미지는 아마추어 사진이나 잡지사진과 같은 익명의 대중 사진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1960년대 팝아트처럼 소비사회의 비평적인 문

3)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1932년 옛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광고디자인과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했던 그는 1951년 드레스덴 아카데미에 입학해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서독으로 이주하여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회화 공부를 계속했다. 이곳에서 그는 피셔-루엑(Konard Fischer-Lueg), 폴케(Sigmar Polke) 등과 교우하며 플럭서스 운동 및 팝아트에 영향을 받고 '자본주의 사실주의(Capitalist Realism)'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본주의 사실주의'란 동독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시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킨 팝아트의 독일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독일의 팝 아티스트로 불리기도 했다. 팝아트의 영향은 그가 대중 잡지의 사진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 그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가져온 사진을 소재로 흐릿하고 형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일련의 추상회화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사진이 갖는 리얼리즘적 요소와 여기에 붓질을 가해 얻어지는 추상적 요소가 합해져 새로운 회화 양식을 선보였다. 1965년부터는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사진 이미지를 단색조로 옮겨 그리며 변화를 모색하였다. 1960년대 말에는 극사실주의적인 풍경사진화와 기하학적인 색채 차트 그림을 그렸고, 1971년과 1972년 사이에는 유명 인물사진화를,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추상회화를 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치 문제를 다루기도 했으며 1990년대에는 보다 완속한 추상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은 당대에 유행했던 팝아트와 모노크롬 회화, 추상표현주의와 포토리얼리즘 등과 연결되면서도 이와 상반된 리히터 자신만의 양식을 표현해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미술계는 회화의 종말을 예견했지만 리히터는 당대의 일반적인 목소리를 뒤로 하고 회화를 고집하면서 다양한 양식을 통해 회화라는 매체를 재해석하고 현시대에 회화가 가지는 본질과 가치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아 나섰다. 그리하여 회화는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으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두산백과, 접속일자 2015.12.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5836&cid=40942&categoryId=34391>

맥이 아니라, 그림의 재현대상과 그리는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예술적 가치도 가지지 않는 풍경, 인물, 풍속 등 여러 장르에서 이미지의 획일화된 형태와 구성 즉 판박이에 있다. 본인이 사진이미지는 일상공간의 재인식 되었을 때 낯선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촬영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재빨리 사진을 찍는다. 순간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공간에서는 카메라를 챙겨서 신중히 촬영을 한다. 이 사진이미지들은 본인의 재인식한 공간에서의 사건 또는 이야기 등의 기록이고 본인 작업의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컴퓨터 틀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다듬어 진다. 원하는 구도라든지 사진의 결합 등의 편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림화면으로 옮길 사진이미지가 완성된다. 본인이 사진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인의 주관적으로 느낀 것을 카메라의 렌즈, 즉 기계의 눈에서 오는 대상의 정확성을 재현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재인식된 풍경에 대하여 자세히 상기시킨다는 점과 카메라라는 물체를 통한 제 3자의 시선을 통한 타자의 시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진이미지를 차용하게 되었다.

사진이미지를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전사하는데 그 전에 그림을 그릴 화면을 만든다. 본인은 장지를 화판에 붙여 아교를 여러 번 바르고 그 위에 입자가 거친 젯소 칠을 여러 번하여 캔버스처럼 보이는 화면을 만든다. 종이가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먹물과 물감이 살짝 겹도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다시 리히터의 사진회화 효과 중에 흐리기 기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리히터의 흐리기 기법은 그림의 최종단계에서 마르지 않은 유화물감에 기름을 바른 큰 붓으로 좌에서 우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방향으로 똑같이 붓질한다. 완성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찍힌 사진처럼 사진으로 위장된 그림으로 나타난다. 이 흐리기 기법은 그림의 반예술을 위해 그림을 사진 이미지로 위장시키는 역할, 렌즈의 광학적 현실로

부터 그림의 현실을 재현하는데 있으며, 끝으로 대중 속에 사라지는 집단 기억의 망각과 왜곡에 대한 시각적 은유로 된다.<sup>4)</sup>

본인의 그림에도 흐리기 기법을 사용한다. 우연의 효과처럼 시작된 캔버스처럼 보이는 화면에서 먹과 물감이 겹도는 것을 보았다. 붓을 이용하여 칠해진 먹과 물감들을 좌우로 방향성 없이 문지르다가 퍼져나가면서 흐려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 효과를 사용함은 본인의 유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본인의 그림에서의 흐리기 효과는 리히터의 그림 제작과정처럼 최종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처럼 보이는 화면이 완성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전사를 통한 스케치를 하기 전에 먹물을 연하게 만들어 큰 넓적붓을 이용하여 칠한다. 그 후 다른 넓적붓을 이용하여 좌우로 방향성 없이 문지르면 먹물이 겹들기 때문에 먹물이 퍼지면서 흐리게 변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유화물감 보조제인 테레핀과 린시드 오일을 기본 비율보다 테레핀을 더 넣은 8 대 2 비율로 섞어서 용액을 스케치 한 곳에 칠한다. 붓 터치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이전 과정과 같이 문지르는데 이때 부터 유화전용의 뾰뾰한 부채꼴모양의 붓으로 한다. 연필의 흑연가루가 용액과 반응으로 물감을 바른 것처럼 번지는 효과가 난다. 다음 과정에서 유화물감을 칠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문질러 흐리기 효과를 주면서 그림을 그려나간다.

위 제작 과정을 보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동양화 재료인 종이(장지), 아교, 먹과 서양화 재료인 유화물감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화물감을 쓰게 된 계기는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여러 작업들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테트리스 블록을 그리고 자를 이용하여 반듯한 선을 그리고 좀처럼 회화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회화에서 가능한 역량을 추구하고 싶은

---

4) 이경률, 『현대미술 사진과 기억』, 사진마실, 2007, pp.197-198

목마름을 느낄 때였다. 우연찮게 얻어진 캔버스처럼 보이는 화면에서 물감이 걸들게 되는 효과를 발견하고 흐리기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 최적화된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 유화물감이 적당하다 생각했다. 일단 아크릴 물감이 나 먹처럼 빨리 마르지 않아서 흐리기 기법을 하기에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유화물감을 보조제를 많이 넣어 수채화처럼 묽게 사용하여 증착되는 느낌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미지를 희미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먹물과 유화물감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둘을 섞는다는 의미 보다는 먹물을 화면에 먼저 칠하고 유화물감을 묽게 올려서 증착시켜 먹물과 유화물감을 공존하게 한다. 이것은 본인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제주도에서 나와 자라 학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1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고 고향 제주도에 내가 모르는 곳으로 변해 이질감을 느끼면서 동떨어져 있는 낯선 곳임을 알았을 때, 그렇다고 서울에서 또한 이런 낯선 느낌을 받았을 때, 남자로서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특수성 등, 소속감과 본인 정체성에 대한 애매모호함이었다. 이 애매모호함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방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들을 내건 ‘회색풍경’이란 타이틀을 정하게 된 이유는 작품들에 회색이 주가 되고 있다는 점과 회색의 다른 의미로 정치적, 사상적 경향이 뚜렷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차용하였다. 본인이 남녀공학이 아닌 여자대학교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지원하고 입학하여 소속되어 있지만 학교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 남자라는 이유로 학교 출입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의 일들은 이 곳 학생이지만 본인을 타자로 인식하게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감정을 회색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재인식되는 일상공간을 작품화 하였다. 작품들을 보다 보면 문을 그린 작품들이 많다. 학교의 정문, 중문, 쪽문, 조형1관

후문, 그리고 개인 작업실 문들. 이 문들을 지나치고 보며 경험한 것들은 금지하는 것, 폐쇄적인 성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많이 느꼈고 본인을 타자로 인식하게 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 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는 공간들이었다. 이 작품들은 흑백사진과 같은 무채색의 그림들이다. 밝은 회색보다는 어두운 회색을 사용하여 침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주려고 하였다.

### 3. 작품설명



【작품 1】 벽(壁), 장지에 혼합재료, 48x190cm, 2013

【작품1】은 점심시간 때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중에 보았던 낮선 풍경이었다. 카페 앞에서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이다. 줄이 너무 길어서 넓은 공간을 가로막게 된 벽과 같았다. 저 줄을 가로 질러 가야하는데 줄 길이에 압도되어 망설여지는 순간에 이 공간이 새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공간 속 배경과 사람들을 명도 대비와 흐리기 기법을 이용한 익명성 통해 공간 속 사람들 벽처럼 보이게 하고자 했다. 【작품1】, 【작품 2】, 【작품 5】처럼 가로로 긴 그림들은 사진 촬영할 때 적절한 화각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 촬영을 통해 여러 컷으로 나눠 컴퓨터 사진 틀로 하나의 사진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거쳐 사진이미지를 만든다.



【작품 2】 막(幕)-저녁 8시 이후, 장지에 혼합재료, 71x204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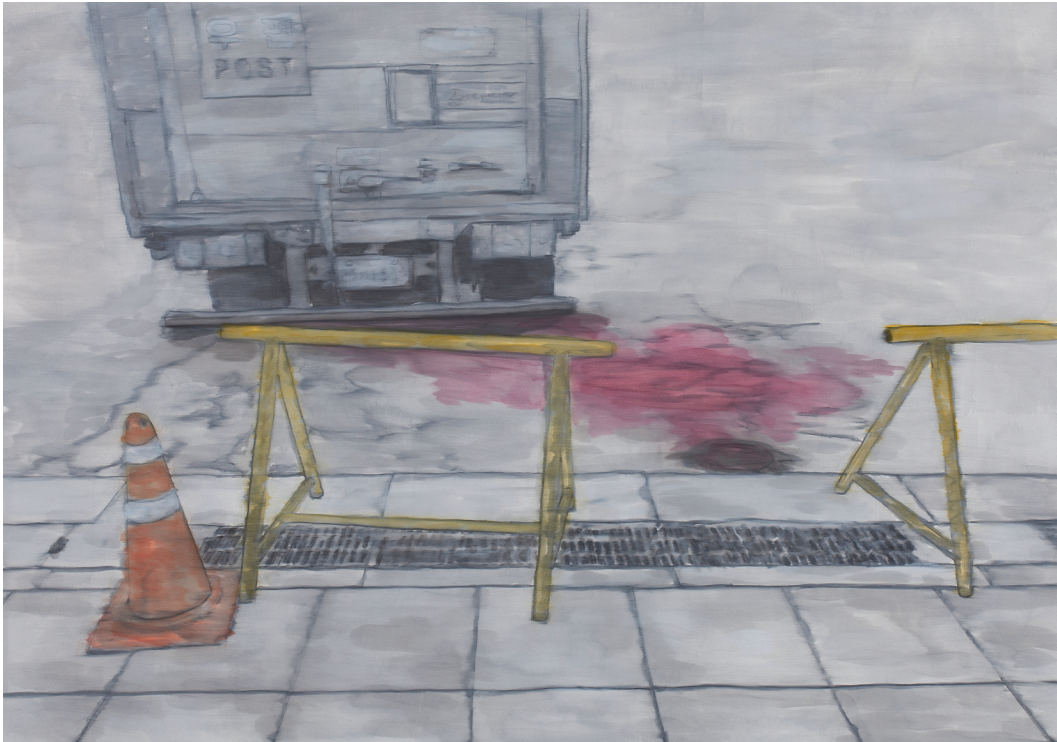
【작품 2】는 학교 정문을 그린 것이다.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던 시기에 매일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정문에서 학교의 방침이었는지, 저녁 8시가 지나면 경비원이 본인을 멈춰 세우고 신분증 검사를 했다. 이 사건은 본인이 타자로서의 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을 그린 것이다.

정문 앞은 조명이 켜져 최대한 밝게 표현하기 위해 먹물과 유화물감이 중첩되어 맑게 보이게 했다. 정문 뒤편은 어두움을 강조하여 폐쇄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 정문 뒤 표지판엔 색깔을 넣어 금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부각시키려 했다.



【작품 3】 분쟁(分爭), 장지에 혼합재료, 61x120cm, 2013

【작품 3】은 정문을 지나 오르막 길 중간 부분에서 교직원과 여학생들과의 언쟁을 그린 것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한 교직원이 여학생들 사이에 둘러 쌓여있었다. 필요하다면 완력이라도 쓸 기세였다. 이 사건은 밖에서 생각해온 여대의 낭만적 이미지에 비추면 낯설게 다가왔다. 교직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였다. 흐리기 기법을 통해 익명성을 부여하고 교직원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더 어둡게 칠해 표현하였다.



【작품 4】 인공장애물(人工障礙物), 장지에 혼합재료, 85x120cm, 2013

【작품 4】 우체국 트럭이 정차하는 곳이다.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봐왔던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체국 트럭이 주차하던 중에 한 학생이 트럭에 치어 사망하게 된 사건을 듣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피와 장애물에는 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일상적인 비극의 속사정을 넉넉히 말해보고 싶었다.

【작품 2】, 【작품 4】, 【작품 7】, 【작품 8】에 바리케이드, 삼각봉, 표지판에 색을 넣어 금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작품 5】 뒷자리, 장지에 혼합재료, 70x208cm, 2013

【작품 5】는 미술대학 졸업전시 뒷풀이가 끝나고 난 후의 모습이다.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었지만 4년간의 결실을 보여주는 졸업전시의 기쁨 속에 뒷풀이는 화기애애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너저분하게 놓인 쓰레기들과 사방에 정돈 안 되어진 책상들은 뒷자리의 적나라함을 보여준다.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의 알 수 없는 미래의 모습 같기도 싶어 처량하기까지 느껴진다.

빛과 그림자가 대조를 이루게 최대한 극대화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진 먹다 남은 콜라는 색을 넣어 강조하려 했다.





【작품 6】 사적인 공간, 장지에 혼합재료, 각 84x40cm, 2013

【작품 6】은 대학원 실기실의 전경을 그렸다. 본인을 제외한 12명의 개인적인 작업공간의 입구 근처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파티션으로 둘러 쌓여 서로 좁은 입구 사이로 출입을 해야 하는데 입구가 좁다 보니 작업공간이 폐쇄적인 공간으로 느껴졌다. 편하게 접근할 수 없었던 비밀의 공간 같은 조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다. 물감 증척시켜 표현한 벽돌과 유화의 혼합은 통해 좁고 깊은 공간 표현을 하고자 했다.



【작품 7】 막(幕), 장지에 혼합재료, 130x194cm, 2013



【작품 8】 막(幕), 장지에 혼합재료, 194x130cm, 2013

【작품 7】, 【작품 8】은 작품은 중문과 쪽문을 그린 작품이다. 중문은 학교 내부로 자동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입구이고 쪽문은 학교로 가장 빠르게 실기실로 갈 수 있는 입구였다. 중문은 자동차가 학교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이지만 평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쪽문은 학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통제되었다. 입구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전체적인 회색톤으로 담담하게 칠하고, 【작품 4】처럼 바리케이드와 장애물에 색을 넣어서 통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작품 9】 If, 장지에 혼합재료, 163x130cm, 2013

【작품 9】는 미술대학 건물인 조형1관 건물 옆에 있는 문이다. 이 문은 거의 잠겨 있어서 이곳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드물다. 간혹 이 문을 통하여 지나갈 때는 철문 밑으로 개구멍을 지나가듯 기어서 다니는 일이 종종 생기면서 집 현관문처럼 비밀번호 도어락이 설치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렸던 작품이다.

### Ⅲ.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작품제작의 배경이 되었던 일상의 개념과 일상생활이 학문적으로 주목하게 된 배경,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성비판에 관하여 알아보고 일상공간 속에서 비일상적인 만남, 즉 사람, 사물 등의 다양한 관계에 의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 작품을 제작의 동기임을 알 수 있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회화 작품의 사진이미지 차용과 흐리기 기법에 관한 방법론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미지를 사용하는 것과 흐리기 기법의 재료와 제작순서, 방향성 등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표현 방법을 논하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먹물과 유화의 관계를 본인의 정체성에 빚대어 논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년간 다닌 대학교에서 일상공간의 풍경을 ‘회색풍경’이란 전시 제목에 대한 설명과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논하여 보았다.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친숙함, 익숙함으로 전제할 수 있는 본인의 일상적 공간, 일상적 의식이 실천적 행동과 비판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공간과 사람, 사물 등의 얽혀있는 다양한 관계와 시간 속에 의해 낮설게 다가오는 순간을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의를 통해 본인이 인상 깊은 대상을 찾는 것보다 익숙하고 가까운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은 일상 공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단서로 기능하였으며, 익숙한 것이야말로 그것을 다시 보게끔 하는 표현의 방식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예술과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 사고들에 비하면

본 작업이 다루는 공간에서 경험은 특정적이며 제한되어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특정주체의 논의를 통해 작업의 동기와 표현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일상 또는 일상 공간이란 주제로 쏟아져 나오는 작업들 중에서 본인이 작품의 차별성에서 대한 문제와 작업 내용의 폭을 넓히는 것 또한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가 일상 공간을 관찰하고 그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작업의 토대가 되기 바란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사랑, 2000
-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 미셸 마페졸리, 앙리 르페브르, 박재환, 고영삼, 김동규 옮김,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10
- 장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 이경률, 『현대미술 사진과 기억』, 사진마실, 2007

### 학위논문

- 김보영, 『일상화된 공간의 재인식을 통한 정서의 시각화 연구 :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양화과(서양화전공), 2013
- 이귀영, 『박완서 소설의 일상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어교육전공, 2011
- 김경화, 『현대적인 일상성의 표현을 위한 재료의 분석과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2013
- 강민성, 『일상 공간의 재인식과 그 표출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양화과(서양화전공), 2004
- 박경원, 『다큐멘터리 사진에 표상된 일상성 연구 : 김기찬의 「골목안 풍경전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 메타디자인학부, 2013
- 양혜림, 『게르하르트 리히터 회화에서 사진과 익명화된 이미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술지 논문

김동윤, 『포스트모던 시대의 일상성과 사회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  
에피스테메, 2007

###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두산백과,  
2015.12.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5836&cid=40942&categoryId=34391>

# ABSTRACT

## A Study on Pictorial Expressions in Everyday Spaces

- Based on My Works -

Kang, Hoon Jeo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aily life is a world that we experience everyday. Also, the spaces of our daily lives in which we live, take up a large portion. Everyone goes through routines, and various things unfold in their spaces as a part. Daily life is a private thing to an individual, but it is also universal.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daily lives,' ordinary routines along with creative activities take place.

This thesis focuses on visualized expression by the author who finds interest in the school scenery that changed from a non-routine space to a routine space, through the 2 years of graduate life at the university. The expressions of the researcher, who looked through the new understanding of space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confirm that arts and lives are not at all unrelated through setting the daily life as the smallest unit, and

analyzing his own works as a part of exploring routines. To achieve this goal and to find out the meaning of dailiness expressed in the works, the author summarizes 1) the concept of 'daily life' in modern societ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work formation, 2) backgrounds of academically spotlighted daily lives, 3) lists of its characteristics, and 4) considerations about the new understanding of spaces in daily lives.

The author explains simple comparisons between Gerhard Richter's photo painting and the author's ones, while he describes production processes and expression methods of his works. Based on this, he explains the works exhibited in the MA thesis exhibition on October, 2013.

With analyzing his works in this thesis, he explains daily experiences looked through his eyes and perception of spaces, and plans the direction for his future works while researching the works' contents and expression methods.